

“곰이·송강 새 보금자리서 건강하게 자라렴”

〈문 전 대통령 반환 풍산개〉

광주시 “우치공원에 9일 도착…건강상 문제로 어제 공개” 대여형식에 무기한 사육… ‘DJ 선물’ 풍산개와 함께 생활

12일 광주시 북구 생육동 우치동물원에 도착한 풍산개 ‘곰이(암컷)’와 ‘송강(수컷)’은 우리 안을 뛰어 다니기 시작했다. 풍산개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고, 체험학습을 온 광주 송덕고 학생들도 활력이 넘치는 풍산개의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광주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지난 9일 우치동물원에 왔다고 12일 밝혔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의 대여 신청을 접수하라’는 공문이 도착했지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오후 5시께 곰이와 송강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9일 도착한 풍산개들에 대해 12일 오전까지도 “이송중이다”는 답변을 내놓다가 12일 공개한 점에 대해 광주시 측은 “풍산개들이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적응을 하지 못해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사육사들의 판단때문에 공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풍산개들이 우치공원에 오는 과정을 광주시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착한 사실조차 밝히지 않은 것은 곰이와 송강을 이용해 깜짝 행사를 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매끄럽지 못한 이송에도 풍산개들의 움직임은 활

발했다. 이날 목에 이름표를 달고 우치동물원 관계자와 함께 울타리가 설치된 놀이터로 들어간 풍산개들은 뛰어놀기 시작했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풍산개가 북쪽에서 와서 그런지 진땀개보다 털도 많고 덩치도 크지만,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한 번도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활발한 움직임과 달리 풍산개들의 건강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곰이는 신장 결석을 앓고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송강은 외이염이 있으나 곧 완치된다는 것이다.

곰이와 송강은 도난 방지 등의 이유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내부 공간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우치동물원 방문객은 곰이와 송강이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 정도 산책과 운동을 할 때 볼 수 있다. 곰이와 송강의 공식 일정은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우치동물원에 있는 곰이와 송강의 새끼 ‘별’과의 만남도 기대를 모았지만, 우치동물원 측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개들은 3개월만 떨어져 지내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지태경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장은 “12일 오전 7시께 곰이와 송강, 그리고 별이를 임시 놀이터에서 만나게 했지만 한창 예민한 상태인 곰이가 별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나타냈다”면서 “당분



1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야외 축사에서 뛰놀며 적응 훈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간 별이는 실외에서, 곰이와 송강은 실내에서 따로 사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곰이와 송강의 중성화 수술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풍산개들은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수술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곰이와 송강이 언제까지 우치동물원에서 생활할지에 대해서는 미정이지만 무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분양이 아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치동물원에 보낸 탓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소장은 “시행령 등이 개정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키우지 않는 이상, 곰이와 송강은 계속 우치동물원에서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곰이’와 ‘송강’, ‘별’이 우치동물원에서 지내게 되면서, 우치동물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를 포함해 총 5마리의 풍산개를 사육하게 됐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전남 기온 ‘뚝’ 눈·비 가능성도

13일 오후부터 광주·전남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이후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한겨울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으며,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의 예상 적설량은 13일 5mm 미만, 14일 1-5cm 수준으로 관측했다.

14일부터는 기온도 뚝 떨어진다. 13일 기상청의 분석이다. 13일 광주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 9도에 머무르다가 14일부터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2도 수준으로 4-7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 지역 역시 13일은 아침최저기온 영하 1도-4도, 낮 최고기온 8-10도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14일에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 0-4도로 떨어져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낮은 기온과 눈으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사고 위험이 높으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인권상 반납한다” 광주 시민단체, 양금덕 할머니 서훈 취소에 반발

정부가 방해해 무산된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의 후폭풍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인권상을 수상한 광주 시민단체가 상 반납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학벌없는시민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은 12일 성명을 내고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훈격 국민훈장 모란상)이 무산될 경우 지난해 단체가 수상한 대한민국 인권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납하겠

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임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인권위원회장 표창 단체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는 30년 동안 피해자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운동가”라며 “하지만 외부의 일본 눈치 보기로 수상 계획이 취소되는 분

위기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08년에도 (인권상에) 최종 추천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를 정부의 입김으로 탈락시킨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 인권상이 독립성과 전문성 없이 정권의 입맛에 흔들리는 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잣대는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 청소년 극단 선택·학폭 상담 급증

안전망 확보 시급

올해 광주 청소년 자살 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따돌림과 우울증 등 상담도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안전망을 확보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7일 개최한 ‘청소년안전망 보고대회’에서 나왔다.

센터는 올해 개인상담, 전화상담, 상담지원서비스 등 14만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자살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392건에서 올해 2102건으로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살 요인으로 꼽히는 지해 상담 또한 지난해 1334건에서 올해 2102건으로 57% 증가했으며, 우울증 상담은 1만 1896건→1만 3343건, 충동 문제 상담은 961건→118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위험 청소년 또한 지난해 3004명에서 391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잠재군이 1517명(38.7%), 위험군이 337명(8.6%)인데 비해 고위험군 청소년이 2064명으로

5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상담은 지난해 2151건에서 올해 4040건으로 87% 증가했으며 학교 외 폭력 상담도 490건→109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따돌림·왕따 상담도 981건→1393건으로 4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관계자는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위험 청소년 발굴과 개입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왜곡 인사가 위원장이라니…

오월단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취임 반발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이 12일 취임했다. 다만 오월 단체들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5·18 당시 헬기 사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5·18의 진실을 왜곡해 온 인사라며 정부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진화위는 김 신임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방승문 화진흥회 이사, 독립기념관 이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진화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 9일까지 2년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잘못된 부정을 바로잡고 화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서 소명을 다하겠다”며 “단 하나의 억울한 피해도 진실규명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단 하나의 진실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업무에 총싡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반발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김 위원장은 ‘5·18 헬기 사격은 허위사실 유포’,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가능성’ 등을 논문으로 발표했던 사람이다”며 “역사왜곡관련처벌법”을 두고서는 국가의 사상통제이며 파시즘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수장에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한 것은 국민 통합의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김광동 위원장의 진실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진정한 과거사 규명을 위해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에 대해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